

실속 재테크

불확실 증시 틈새 투자처 '공모주 펀드'

공모주 상장후 차익실현...안정+수익 '두토끼'

기관 통해 물량 배정...개인보다 유리해
공모 참여 않는 기간엔 국공채 등 투자

지난 15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실시한 YG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에 올해 코스닥 최대규모인 3조 6,380억이 몰렸다.

이 커지고 있다. 공모주 청약이란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의 청약경쟁률이 560대 1을 넘고 지난 7월 삼원강재는 70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경쟁이 치열하고 주간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해 청약에 불편함이 따른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모주시장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 공모주 펀드이다. 공모주펀드는 상장직전 주식공모에 참여한 뒤 상장 이후 적당한 시기에 차익실현을 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기관투자자의 지위로 청약에 참여하므로 개인투자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공모주펀드에는 ▲주식혼합형과 ▲채권혼합형 두 종류가 있다. 채권혼합형은 일반 채권펀드와 같이 채권투자를 하면서 공모주에 자산의 10~30%정도의 금액을 청약하고, 주식혼합형은 IPO가 없는 평상시에는

단기채권상품이나 은행예금에 투자하며 공모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산의 90%까지 청약을 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증거금이 면제되므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펀드의 수익률은 펀드운용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때문에 펀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높은 공모주 투자효과를 추구하는 투자자는 유전자산운용의 '유진캡피어 공모주 주식혼합형펀드'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하이자산운용의 '하이공모주플러스10 채권혼합형펀드'와 ING자산운용의 'ING 파워투기 공모주증권 투자회사 10-1'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 정계두 부지점장 /정리=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경제 프리즘



하동만

올해는 시장기능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의 한계가 지구촌을 달군 한 해였다. 3년만에 재현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월가를 점령하라'는 젊은이들의 분노로 폭발하고 있고 국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빈곤층,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민소득을 발표할 때마다 여러 환율을 가지고 달러로 표시된 소득을 계산해 보곤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곧 1만7천 달러로 내려갔다 최근 2만 가지붕이 슬레이트 벽으로 바뀌었으니 아직 공한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

바뀌어 말하면 국제기준으로 보아 우리 경쟁력이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30여년 경제관료로 봉사하는 동

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친환경 녹색성장은 2단계 녹색선진화 전략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다. 우리 농촌은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집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으나 아직 공한 티를 벗지 못하고 있다. 농가소득·문화해택도 격차가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 특히 유럽에서는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는 다섯가지 조건

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왜 우리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주 허둥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공직을 떠난 지금에야 어렴풋이 그 실마리의 일부가 시야에 잡힌 것 같이 말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첫째 조건은 1인당 소득이 3~4만 달러에 이르고 경제·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튼튼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조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이 세계 1~6위로 최상위에 있고, 정보통신·바이오 등 첨단 기술 집약 분야도 선두그룹에 속한다.

두 번째 조건은 푸르고 기쁜 국토, 녹색환경의 조성에 있다. 선진국치고 산하가 활벗은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 수탈과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다 시피한 국토를 각고의 노력 끝에 가꾸었다. 이것이 기쁜 국토를 가꾼 1단계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에 불과하다. 일본은 62%, 미국은 69%,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으로는 61%이다. 앞으로 가속화될 고령화에 대비하고 높아질 소비수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소득·취업 등 모든 분야에서 기대치를 낮추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연 3~4%를 상회하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20%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자영업, 대기업이 아니면 직장이 아닌 것으로 여겨는 풍조 등이 모든 의식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제활력의 원천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미국의 빌게이츠나 일본의 손정의, 우리의 박지성·김연아 선수와 같이 재능과 창의를 통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 ▲특허청장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
▲전경련 전무

국내 등록 수입차 60만대 눈앞

올해 들어 수입차 판매가 늘면서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가 60만대에 바짝 다가섰다. 17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상용차 제외)는 총 59만6398대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와 독점 수입권자 이외의 비공식 수입업자에 의해 병행수입된 승용차를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는 수입차 국내에 상륙한 이후 처음으로 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10만4559대를 기록하며 홀로 10만대를 넘었다. 등록된 수입 승용차 가운데 17.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실무자 초청 강연
광주은행은 17일 광운리더스클럽 실무자들을 초청, 외환·세무·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등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외환·세무·2012년 경제전망 관련 현업 전문가 3명을 강사로 초빙해 최신 실무자료를 중심으로 특강이 진행됐다. <광주은행 제공>

아시아나항공 고객만족도 1위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3대 서비스품질 평가기관의 고객만족도 1위를 석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1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위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항공 부문 1위 인증패를 받았다.

KS-SQI는 한국표준협회(KSA)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국내 산업과 소비자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차별화된 서비스, 신뢰성, 친절성 등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항공부문 1위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토마토저축銀 인수 '신한-우리' 2파전

내주 우선협상사 선정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9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인수를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 본입찰서를 제출했다. 신한금융지주 측은 "토마토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했고 오전 중에 낸 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예비 입찰 때 참여했던 제일저축은행은 포기하고 토마토저축은행에만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에는 KB금융지주가 본입찰서를 냈다. KB금융지주 측은 "제일저축은행 인수에 만 힘을 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 인수전에는 하나금융지주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라임·파랑새저

축은행 패키지는 아주캐피탈과 하나금융지주, BS금융지주 등이 본입찰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저축은행 본입찰에 참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할 상황인데, 제일저축은행과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패키지에 모두 참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본입찰은 오후 5시 마감되며, 이르면 내주 중에 각 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새 주인이 나오게 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iant Golfzon featuring golfers and promotional text: '5분 레슨이 충분하시던가요? 이제 '자이언트 골프존'에서 국내 유명 프로들의 전문 레슨을 한시간 동안 집중과외의 받으세요!!'

Advertisement for Sangmuji-gu Grand Hotel: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항술인 행사' with details on packages and contact info: '362-0011, 600-9999'